

말 하는 그 순간 이미 틀렸다



30 차나 한 잔 마시게

“대나무 숲 뒤뜰에서 서로 만나 아무 일 없이, 온 대중이 모두 모여 조주차를 마신다(竹院相逢一事大家同喫趙州茶).”
어느 시의 한 구절입니다. 조주의 ‘꼭다거’가 유명하다 보니 차에 관한 수많은 선시가 생겨났습

‘차나 한 잔 마시게.’ 이것이 무슨 뜻일까?
우선 젊은 수좌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당대의 선장(禪匠) 조주 선사를 찾아왔을 때에는 무언가 분명히 묻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사, 무엇이 선(禪)의 진리입니까? 교시를 바랍니다.” 이 말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선의 세계는 언설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개구즉착(開口卽錯), 말을 하는 그 순간 이미 틀렸다!이라는 말도 있듯이 표현하는 그 순간 이미 무의미한 말(死句)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해서 조주 선사는 말로 표현하는 대신 차를 내민 것입니다.
“무슨 일이 죽을 선의 진리.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차나 한 잔 마시고 가!”
이런 뜻이었을까? 물론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유와 무 구분은 차별심·분별심이며 이분법적 사고 차는 상대방의 분별심을 강하게 질타하는 몽둥이

니다.
“차 한 잔 마시게(喫茶去).”
이 선언은 그 어떤 선언보다도 많이 알려진 선어이자 화두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승 조주 선사(778-897)는 신참이든 구점이든 수행자들이 찾아오면 언제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혹 이곳에 와 본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차나 한 잔 마시게(喫茶去).”
다음 날 또 한 명의 신참승이 찾아왔습니다.
“자네, 전에 이곳에 와 본 적이 있는가?”
“네,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차나 한 잔 마시게(喫茶去).”
절 살림을 맡고 있는 원주스님이 옆에서 묵묵히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가관이었습니다. 와 본 적이 있다고 해도 ‘차 한 잔’, 없다고 해도 ‘차 한 잔’이었습니다. 원주는 입이 몹시 근질거리려 조주 선사에게 따졌습니다.
“노사, 노사께서는 처음 왔다는 사람에게도 ‘차나 한 잔’, 이미 와 본 적이 있다는 사람에게도 ‘차나 한 잔 마시라’고 하시니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조주 선사는 “원주” 하고 불렀습니다.
원주가 대답하자 조주 선사는 그 원주에게도 역시 “자네도 차나 한 잔 마시게”라고 했습니다. 와 본 적이 있어도 ‘차 한 잔’, 없어도 ‘차 한 잔’, 그리고 그것이 못마땅해서 참견하는 원주에게도 ‘차 한 잔’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년 계속되자 조주의 ‘꼭다거’는 일약 중국 전하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 중국의 선승들에게 차는 일상이고, 깨달음의 세계 또한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상은 무심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 화두를 푸는 열쇠는 “여기에 와 본 적이 있는가?” “없느냐?”에 있습니다. 물론 있다고 해도 얻어맞아야 하고(차 한 잔 마시라 하고), 없다고 해도 얻어맞아야 합니다. 있다고 하면 ‘유(有)’에 구속되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무(無)’에 구속됩니다. 유(有)와 무(無)를 구분하는 것은 차별심이고 분별심이며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이분법은 어쩔 수 없이 또 집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따지는 원주도 당연히 얻어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 한 잔 마시라 합니다.
여기서 조주 선사의 ‘차 한 잔’은 단순한 녹차 한 잔이 아닙니다. 그의 차는 상대방의 분별심을 강하게 질타하는 몽둥이입니다. ‘있다(有)’, ‘없다(無)’에 대한 상대적 인식과 분별심을 버리라는 뜻을 담고 있는 차입니다. 그런데 만일 조주 선사의 말씀에 대하여 젊은 수좌들이 침묵했다면 조주 선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침묵해도 역시 ‘차나 한 잔 마시라’고 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이자 화두입니다.
다산일미(茶禪一味).
각설하고, 조주 선사가 내미는 연두색 차 한 잔을 그야말로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무심히 마실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좌선의 일은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자는 깨닫는 것, 모르는 자는 더 참구해야 할 것입니다. 거(去)는 명령형의 어조사입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음은 여인들의 수행법

“염불 잘해 극락세계 영화대서 만남시다”

30 심육량

중국 원나라 때 서호 지방에 살았던 도씨 집안의 심육량(十六娘)은 26세의 젊은 나이로 남편과 사별했다. 아이마저 없었던 그녀는 한동안 실의에 빠져 살다가 인근 사찰에 계신 스님의 권고로 <아미타경>을 독경하기 시작했다. 고독한 삶이 가져다 주는 외로움과 슬픔 등을 아미타부처님께 모두 바치고 의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녀는 아침, 저녁으로 <아미타경>을 한 번씩 읽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나 무아미타불’을 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기를 1년가량 된 어느 날, 흰 옷을 입은 노인이 흰 연꽃 한 송이를 들고 꿈에 나타나 말했다.
“너에게 주기 위해 이 꽃을 가지고 왔으니, 어서 먹어 보거라.”
심육량은 공손히 꽃을 받아먹고 꿈에서 깨어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무척 즐거워졌다. 홀로 된 이후 언제나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우울증도 말끔히 사라졌다.
이렇게 아미타불의 가피를 입은 심육량은 밤에 아미타불상을 모신 다음 더욱 열심히 <아미타경>을 읽고 ‘나 무아미타불’을 염했다.
그런데 만 3년이 되는 날, 방안에 모셔놓은 아미타불상이 방광(放光)을 하더니 경상 위의 <아미타경>에 불명어리 같은 것이 보였다. 그녀는 경전이 타는 줄 알고 황급히 불을 끄려 했지만 꺼지지 않았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눈부신 사리(舍利)였던 것이다.

그날 이후부터 심육량에게는 세상이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었다. 마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평안했다. 그녀는 항상 부드러운 미소와 따스한 말로 사람들에게 아미타불을 염할 것을 권하며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을 불러 말했다.
“저는 이제 극락세계의 아미타부처님께로 갑니다. 부디 염불을 잘 하여 극락세계의 영화대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그리고는 단정히 앉은 채 숨을 거두었다.

기도 한다.
염불 이외의 행법을 닦는 수행자들은 <아미타경>의 서방 정토가 마음 밖에 따로 있다고 보고, ‘삼계가 오직 마음이고, 만법이 오직 의식이다(三界唯心 萬法唯識)’고 하는 불교 교리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극락이 서방에 있든, 내세에 있든, 지금 여기에 있든, 그 역시 마음 안의 것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꿈을 깨라고 설한 37가지 수행법(37道法)’ 역시 유심(唯心)의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분별심을 여의고 참선, 염불, 간경, 위빠사나라고 하는 방편들을 보면 모든 행법이 꿈을 깨는 ‘자명종’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일체의 법은 모두 꿈과 환상과 같다. 사바세계는 물론이요 극락세계 또한 꿈이다. 그렇다면 염불 수행을 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이에 대해 철오(1741~1810) 선사는 <철오선사어록>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
“제7지 이하 보살은 꿈속에서 도를 닦으며, 무명(無明)이라는 큰 꿈은 비록 등각(等覺)보살조차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직 부처님만이 비로소 크게 깨어있다(大覺)고 하는 것이다... 극락세계의 꿈은 꿈에서 깨어남(깨달음)으로 나아가면서, 깨어나고 또 깨어날수록 점점 부처님의 큰 깨어남에 이르는 것이다. 꿈꾸는 것은 둘 다 같지만, 꿈꾸는 까닭(목적)은 일찍부터 서로 같지 않거늘, 어떻게 함께 나란히 논할 수 있겠는가?”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 2008 세계일화 정전대회 폴란드 바르샤바 - 서울 화계사가 숭산 스님으로부터 이어진 세계일화대회를 9월 유럽지역에서 개최한다. '세계는 한송이 꽃 대회(세계일화)'는 9월 19~26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다. 20~21일 세계일화대회 회가 열린 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호인 비엘리치카 소금광산 및 폴란드 구 수도 크라코프 시내관광, 오스트리아 비엔나, 헝가리 궁전 등 시티투어, 천문시계 등 체코 프라하 관광이 마련된다. 동참금은 300만원 예정이다. (02)902-2663, www.singleflower2008.org
- 팔리문헌연구소가 이항경 강좌(팔리문헌연구소는 9월 5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아함경) 강좌를 개강한다. 청원해탈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아함경) 강좌는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이 강사로 나선다. 수강료는 월 5만원이다. 접수

- 마감은 8월 31일까지, 선착순 50명 모집이다. (055)285-9383
- 해원정사 수능 100일 기도=부산 해원정사는 2009년도 대학입시 수험능력시험을 맞아 100일기도를 봉행한다. 8월 6일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기도에 입제한다. 동참금은 10만원. 이에 앞서 5일부터 칠석삼일기도가 시작돼 7일 끝난다. 동참금은 2만원. (051)866-7771
- 용주사 불교교양대학, 경각불교대학 신입생 모집=화성 용주사가 불교교양대학과 경각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에 나섰다. 9월 3일 개강하는 불교교양대학은 매주 수요일 낮 12시 수업이 진행된다. 수강료는 5만원. 같은 날 오후 2시 개강하는 경각불교대학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효행교육원에서 강의한다. 수강료는 12만원. (031)234-0040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하주사는 본래는 안내 치료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하문의 상담 현황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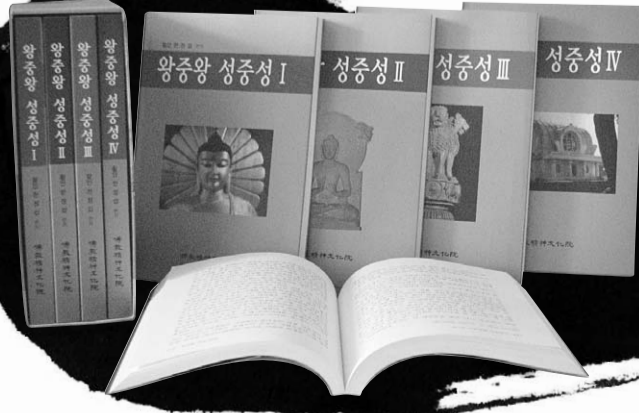
부처님은 왕 가운데 왕이시고, 성현 가운데 성현이며, 하늘 가운데 하늘이라



‘왕중왕성중성’ 王中王 聖中聖

‘세계는 한 꽃이요, 만민은 동체(同體)라는 일념(一念)’으로 부처님의 언행이 고스란히 담긴 대장경을 50년간 탐독해온 활안스님 정진의 결실로, 부처님의 일생을 經과 律로써 모든 것을 풀어낸 역작...

■ 활안(한정섭)스님 편저 | 불교정신문화원 | 전 4권 4만 8천원



불교 교리발전의 근거가 된 부처님의 말씀과 일대기를 체계 있게 총 정리하였습니다. 누구나 이 책을 읽으면 불교의 이치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바른길을 걸으신 부처님의 행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불교정신문화원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사)한국불교교강선원
구입문의 : 02)969-2410

부처님의 일생에 관련된 사진 자료, 여러 경전의 말씀, 승단의 계율 등 부처님의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한국불교의 찬란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법수선재



잘 죽는 법과 사후세계의 구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책

【 죽음을 준비하는 법 】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도, 자기가 죽으리라는 걸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명상학교 교과서 시리즈 】 건강하게 사는 법 • 사랑의 상처를 달래는 법 • 행복하게 일하는 법(근간)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명쾌한 해답!

【 목적있게 사는 법 】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왜 생로병사를 겪을까? 이러한 의문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 해답은 명상 수행에서 찾을 수 있다. 명상 수행을 통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 참된 본성과 하나가 되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

